



무주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예방 활동 진행

무주소방서는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등산복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등산객이 집중되는 4월부터 5월까지 봄철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구천동 119안전센터 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주요 운영 내용은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 구조 및 구호 활동 △간이 응급의료소 운영 및 기초 체력 △산악사고 저감 안전산행 안내 및 유동 순찰 △등산로 내 안전시설(위치표지판 등) 점검 등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남원시보건소, '춘향사랑 가족힐링걷기' 성료

남원시보건소는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5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사랑의 광장 및 요천 일대에서 '춘향사랑 가족힐링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민과 춘향제 방문객 등 약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가족 중심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랑의 광장을 출발해 동림교, 남원대교, 춘향교를 순환하는 약 3km 코스를 운영했으며, 개회식과 준비체조 이후 본격적인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남원용성포터리클럽이 주관하고 남원시보건소가 참여·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학생 자원 봉사자와 남원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장, 관청 종류별 활용법 직접 교육 나서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화재진압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경승 소방서장이 직접 참여해 진행됐으며, 현장대원의 장비 활용 능력 향상과 실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반복 숙달훈련을 통해 장비 운용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에 오선영 교수 임명

“산·학·연·병 협력으로 연구역량 전국 최고 수준 도약할 것”

전북대학교병원은 신임 의생명연구원장에 오선영 교수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오 선영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4월 30일까지로, 의생명연구원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1991년 설립 이후 임상 및 기초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임상시험, 기능성 식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유효성 평가, 동물실험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와 임상 적용이 가능한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전북지역 임상연구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연구원에는 임상시험센터,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전북빅데이터센터, 유효성평가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책과제와 외부 위탁과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 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전북대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어지럼증과 두통, 다발성경화증, 중증근무력증 등 신경계 질환을 진료·연구해 왔다. 또한 대한평형학회, 대한신경면역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등에서 학술·연구 분야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하는 등 국내외 학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오선영 원장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산·학·연·병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바이오 연구 활성화와 산업화에 기여하고, 연구역량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의생명연구원은 병원의 연구 경쟁력과 미래 의료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관”이라며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와 중개연구를 활성화해 세계와 경쟁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 성료... 2000여명 참여 '성황'

정읍시는 지난 5일 정읍제일고등학교에서 2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읍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복경)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점핑 공연과 청소년 판소리 무대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어린이와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들이 다 함께 어린이날 노래를 제창했다.

기념식이 끝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가족 여가 활동(테크 리레이션)을 비롯해 무작위 춤(랜덤 댄스), 점핑 놀이, 만들기 체험, 즉석 사진(인생네컷) 촬영 등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기에 청소년 댄스 공연과 비눗방울 공연이 더해져 볼거리를 풍성하게 채웠다.

지역 유관기관과 기업의 동참도 행사의 내실을 더했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119 소방 안전, 미아 방지 지문 등록, 응급 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또한, BGF리테일(CU 편의점)이 6종의 과자 약 3000개를 제공하고,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등 20개 기관이 자전거를 후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춘향제 119 소방안전 체험 부스 운영

남원소방서 제96회 춘향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119 소방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소방안전체험 부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7일간 남원시 차없는 거리 일원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 및 교육 내용은 △올바른 119 신고 방법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안전한 대피 방법 △생명을 살리는 4분의 1기적, 심폐소생술(CPR) 기본 교육 및 마네킹 활용 실습 △어린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의 눈높이 맞춤형 흥미 위주 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어린이날 '오늘은 내가 경찰관' 체험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장수군 의암공원 일대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장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경찰 체험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경찰서 전 기능이 협력하여 축제 현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찰 제복 입어보기, 순찰차 탑승, 포돌이·포순이 포토존 운영, 아동 지문등록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 부모, 군민들 대상 학교폭력·마약·스미스 범죄 및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 하였으며, 경찰 캐릭터 지비지, 부채, 어린이 상처밴드 등 기념품을 배부 홍보 효과를 높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NH농협 정읍시지부, 우리 쌀 소비 촉진 떡 나눔 행사

NH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는 지난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쌀 소비 촉진, 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우리 쌀로 만든 떡을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쌀의 우수성과 영양적 가치를 알리고, 일상 속 쌀 소비 확대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